



최강희 감독

# “카타르 밀집수비를 뚫어라”



오늘 밤 8시 월드컵 최종예선 5차전

최강희 감독 “사고 칠 선수 많아 꼭 이길 것”

“ 그동안 평가전에서 보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만큼 집중력을 갖고 훈련했다. 전혀 다른 대표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강희 감독은 카타르와의 결전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기에서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평가전은 대표팀의 조합과 전술을 실험할 무대였을 뿐이며 가장 뛰어난 대표팀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결과에도 크게 패념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강희 감독은 “선수들의 몸 상태가 굉장히 좋다”며 “충격을 기술로 카타르전에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 카타르전은 한국의 8회 연속 월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A그룹)**

순위	승	무	패	승점	골득실	
1	우즈베크	2	2	1	8	1
2	대한민국	2	1	1	7	+5
3	이란	2	1	2	7	0
4	카타르	2	1	2	7	-2
5	레바논	1	1	3	4	-4

드컵 본선진출의 향방을 가를 만한 중요한 일전이다. 한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4경기에서 2연승 뒤 1무1패를 거둬 승점 7을 기록, 한 경기를 더 치른 우즈베키스탄(2승2무1패·승점 8)에 이어 2위다. 이란(2승1무1패·골득실 +5)과 카타르(2승1무2패·-2)가 바짝 뒤를 쫓고 있다.

한국은 승점 3점을 반드시 확보하고 조 1위에 올라야 남은 최종예선 경기를 마음 편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카타르와의 일전을 하루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이 25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치를 수 있다. 1·2위까지만 브라질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한국은 이 경기 이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6월에만 레바논(4일·원정), 우즈베키스탄(11일·홈), 이란(18일·홈) 등과 3경기를 치러야 한다.

아직 세계 축구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카타르(FIFA 랭킹 98위) 축구대표팀이 한국(FIFA 랭킹 47위)을 뛰어넘고 세계 축구로

뻗어나가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카타르 축구대표팀의 파하드 타니(40) 감독은 한국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5차전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카타르가 한국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치겠지만 나와 선수들 모두 큰 야망을 품고 있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1월부터 카타르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타니 감독은 팀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델카림 하산, 칼리드 무프타 등 ‘젊은 피’를 중용하며 팀 스피드를 끌어올렸다.

최강희 감독은 이전 인터뷰에서 “타니 감독 부임이후 카타르 대표팀의 측면공격이 날카로워지고 수비 조직력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타니 감독은 “부임이후 카타르 축구의 성향과 특성은 유지하면서 철학과 스타일에서는 변화를 줬다”며 “내가 카타르 축구를 맡은 후 카타르 축구가 야망과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타니 감독은 “A조에서 1·2위를 차지하든, 플레이오프를 치르든, 월드컵 본선에 나갈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호락호락하게 점수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김인경 또 퍼팅에 ‘눈물’

KIA 클래식 연장 승부 준우승  
 지난해도 30cm 실패 우승 놓쳐

김인경(25·하나금융그룹)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연장 승부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인경은 25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의 아비아라 골프장(파 72·659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보기 4개를 적어내 1타를 줄이는데 그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친 김인경은 이날 2타를 잃은 베아트리스 레카리(스페인)와 함께 연장전에 들어갔다.

김인경은 연장 두번째 홀에서 파에 머물러 버디를 기록한 레카리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레카리의 두번째 샷이 그린 오른쪽의 워터해저드 근처 러프에 떨어진 사이 김인경은 볼을 그린 위에 깔끔히 올렸다. 그 후 10m가량의 버디 퍼트를 했으나 홀을 20cm 정도 왼쪽으로 빗겨가 볼을 다시 주워들었다.

러프에서 바로 퍼터를 꺼내 든 레카리는

5.5m가량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결정지었다. 2010년 CVS파머시 LPGA 쉐린지 이후 LPGA 투어 통산 두번째 우승이다.

LPGA 투어 통산 3승을 올린 김인경은 2010년 11월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 이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연장전도 여러번 치렀으나 매번 우승컵 앞에서 돌아섰다.

새내기였던 2007년에는 웨그먼스LPGA 최종 라운드에서 18번홀(파4) 퍼퍼트를 놓치면서 연장전에 끌려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 우승을 내줬다.

2010년 7월 제이미파 오웬스 코닝클래스에서는 최나연, 김승희, 김조흥 등과 연장 대결을 벌였으나 최나연에게 우승컵을 넘겼다.

지난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도 마지막날 다 잡은 우승을 놓쳤다. 마지막 홀을 남긴 상황에서 먼저 정규 라운드를 마친 2위 유선영(26·정관장)에 1타 앞선 10언더파를 기록한 김인경은 18번홀(파5)에서 30cm 거리의 파 퍼트에 실패하는 바람에 연장전에 들어갔다가 준우승에 그쳤다. /연합뉴스



김인경이 KIA 클래식 마지막날인 24일(현지시간) 베아트리스 레카리와 연장전 18번홀에서 버디 퍼팅에 실패한 뒤 안타까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체고 이승철·권지연 핀수영 금메달

전국학생선수권대회  
 광주시체육회 은2·동3 획득

광주체육고등학교 이승철·권지연(이상 2학년)이 지난 23~24일 부산 사직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21회 전국 학생 핀(fin)수영 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걸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첫 대회이자 오는 8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경기였다.

25일 광주시 체육회에 따르면 남자 고등부 이승철이 짝핀 50m에서 21초68로, 여자 고등부 권지연이 짝핀 50m에서 25초47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비롯해 은메달 2,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남자 일반부 김태균(광주시체육회)이 호흡자영(스쿠버 잠영) 100m에서 33초11로, 김호현(광주시 체육회)이 표면 800m에서 7분1초2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남고부 이승철은 짝핀 50m 급에 이어 짝핀 100m에서도 동메달을 따 2관왕이었다.

여고부 김경윤(광주체고 2)이 표면 1500m에서 동메달을, 남자 일반 단체전 계영



이승철 권지연

400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광주 수중핀수영협회 신승구 전무이사는 “현재 광주체고의 경우 핀수영 전담 코치가 없어 일반 수영코치가 겸하고 있다. 핀수영과 일반 수영은 영법(泳法)이 다르다”면서 “시 체육회와 시 교육청에서 적극 나선다면 핀수영 선수들의 기록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모노핀)나 오리발(짝핀) 같은 지느러미를 발에 신고 물 표면이나 수중에서 헤엄쳐 누가 빠르냐 겨루는 종목이다. 표면 종목은 스노클을, 호흡장염은 공기탱크를 착용한 채 경기에 나선다. 현재 광주에는 총 14명(광주체고 9·실업팀 5명)의 핀수영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빙속 이상화·모태범 세계선수권 2연패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뜨겁게 달군 ‘빙속 삼총사’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나란히 상승세를 타 주목된다.

이상화(24·서울시청), 모태범(24·대한항공), 이승훈(25·대한항공)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합쳐 ‘스피드 코리아’의 기적을 일군 주인공이다.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은 한국 체대 동기인 세 선수의 맹활약에 일약 강호로 뛰어올랐다.

24일 러시아 소치에서 막을 내린 201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 선수가 나란히 상승세를 탔다.

이상화와 모태범은 나란히 500m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첫 2연패를 달성했다. 이승훈은 개인 종목에서는 어렵게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팀 추월에서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아시아 국가 사상 첫 은메달을 목에 거는 위업을 이뤘다.

소치에서 기분좋은 기억을 안은 ‘빙속 삼총사’가 내년까지 기세를 이어 ‘여거인 밴쿠버’를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제-  
 [맥주 or 소주 1병] 택1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